

원구성 협상 곧 착수... 상임위장 쟁탈전 예고

이르면 내일 원내대표 회동... 상임위 배분 이해관계 얽혀 난제 경찰청장 청문회 등 현안 산적... 민주, 7월 임시국회 소집 고심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 5월 30일부터 27일째 계속되는 입법부 공백 사태가 해소될지 주목된다.

6·13 지방선거 참패의 쓰나미로 대환란에 빠졌던 자유한국당을 비롯해 야당이 25일 일제히 원 구성 협상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히자 더불어민주당은 조기에 협상을 완료하겠다고 나서 호응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급부부터는 후반기 원구성과 산적한 민생현안에 대해 한국당이 정책정당으로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이번 주를 기점으로 원 구성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신임 원내대표로 이날 선출된 김관영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원내대표는 후반기 원구성 협상을 준비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 “민주당에서 연락이 오는 대로 바로 협상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평화와 정의의 모임 원내대표인 민주평화당 강병완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소한 27일부터는 원 구성 협상을 시작해 늦어도 7월 초에는 원 구성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따라 27일이 원 구성을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성사될 것으로 전망된다. 협상이 시작되면 국회의장단 및 18곳의 상임위 위원장 배분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원내 1당인 민주당은 관례에 따라 문화상 의원을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한 상태지만, 평화당은 자유투표를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는 전반기 국회에서 원내 2·3당이 각각 맡았던 국회부의장 2명에 대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민주당이 원내 1당이기는 하지만 의석구도는 여소야대(與小野大)이기 때문에 적절한 합의없이 표결이 진행된다면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상임위원장의 경우에는 의석 규모에 따라 민주당 8곳, 한국당 7곳, 바른미래당 2곳,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 1곳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 의견이다. 그러나 평화와 정의의 모임은 상임위원장으로 2곳을 요구하고 있는 데다 어느 상임위를 어떻게 나눌지를 놓고도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상황이다. 원 구성 협상에 착수해도 완료까지는 상당 시간이 걸릴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회의장단 선출과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을 분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상임위원장 배분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만큼 의장단을 먼저 구성하는 것이다. 하지만 평화와 정의의 모임이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평화와 정의의 모임에서는 의장단 선출과 상임위원장 배분을 연계해야 플러스 알파의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어서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소집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이다. 민생 관련 법안 처리나 인사청문회, 판문점선언 지지결의안 등의 현안 처리를 위해서는 7월 임시국회 소집이 불가피하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하지만 야당들이 원 구성 협상 타결 이전에 임시국회 소집에 동의할 가능성은 낮다. 따라서 민주당은 원구성 협상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7월 국회를 소집할 것으로 전망된다. /임동욱 기자 tuim@

바른미래 새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신임 원내대표에 재선의 김관영 의원(전북 군산)이 선출됐다. 김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이언주

의원을 누르고 승리했다. 이날 투표에 참여한 의원은 26명으로, 한 후보가 과반을 득표하면 더 이상 개표하지 않기로 해 김 원내대표의 정확한 득표수는 나오지 않았다.

김 원내대표는 당선인사를 통해 “최선을 다해 당의 활로를 개척해 나가겠다”며 “당화합이든 자강이든 원구성 협상이든 한 번에 모든 것을 이루기는 어렵다. 항상 소통하고 협력해서 젊고 강한 야당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로 비슷한 부분은 협력해 공통 정책을 만들고, 상이한 부분은 그대로 놓아두면서 서로를 더욱 이해하려는 노력이 반복된다면 당이 하나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잘 지냅니다” 25일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68주년 6·25전쟁 기념식에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오른쪽)와 자유한국당 김성태 당 대표 권한대행이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 “평화의 바람 불어”... 한국당 “한미훈련 중단 우려”

여야 6·25 68주년 행사 집결

여야 지도부는 6·25 전쟁 68주년을 맞아 25일 정부 주관 공식 행사에 일제히 참석했지만, 현정세를 바라보는 시각은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완 원내대표는 서면브리핑에서 “4·27 판문점 공동선언”과 함께 68년 만에 한반도 평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며 “체제와 이념을 넘어 이산가족

문제는 기본적 인권문제로서 가장 우선으로 풀어나갈 시대의 과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원내대표는 논평에서 “남북-미북정상회담으로 북핵 폐기를 통한 평화의 꿈이 진일보했다”면서도 “마지막 불꽃이 가장 화려하다는 말이 있듯이 더욱 경계하고,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뿐만 아니라 우리 군의 자체 훈련도 줄줄이 연기되고, 주한미군 철수까지 거론되

면서 국민의 우려가 커지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북핵 폐기와 이산가족 상봉, 참전용사들의 명예를 높일 수 있는 근본 대책 마련과 보훈가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한국군 및 경찰의 유해와 남북사 송환,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외교활동을 주문한다”고 촉구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친문 박범계 도전장... 민주 당권경쟁 본격화 전해철도 당 비전 제시... 송영길 오늘 순천대 토크콘서트

8·25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문(친 문재인) 당권 주자들의 교통정리가 쉽게 이뤄지지 않고 있어 주목된다. 당장 친문 진영의 박범계 수석대변인은 25일 당권 도전 입장을 나타냈다.

박 대변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결코 문 대통령을 홀로 뛰게 하지 않겠다”라며 “정력을 다하여 당원과 국민을 대하고 혁신의 선봉으로 돌출을 일으켜 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전대 당 대표 출마를 준비하려 한다”고 밝혔다.

특히, 박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친문 후보들의 단일화 가능성과 관련해 “당 대표를 뽑는 과정이 단일화이며, 후보 간 단일화라는 공약은 우리 당이 나아가야 할 길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주류인 친문(친문재인)계 인사 가운데 대표경선 출마를 공식화한 것은 박 대변인이 처음이다.

이에 앞서 당권 도전이 거론되는 전해철 의원은 지난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당 운영 비전을 공개, 사실상 경선 준비를 시사하기도 했다. 그는 “강력한 당정협력으로 국정위 구성을 확고하게 만들고, 당 혁신을 주도해 흔들림 없이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친문 인사인 최재성 의원은 “혁신의 힘은 당 원이고 승리의 근거도 당원”이라며 “최

재성 소환 당원토론’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 온 친문 인사들의 전당대회 출마 선언이 이어지지 않느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일찌감치 전대를 준비해 온 4선 김진표 의원과 출마를 고심중인 7선의 이해찬 의원이 어떠한 판단을 내릴 것인지 주목된다. 당내에서는 이번 주 내에 친문 진영이 교통정리를 마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인사들의 당권 도전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구도를 그려낸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전대의 최대 변수로 주목돼 온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출마설과 관련해 곤혹스럽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김 장관은 불출마에 방점을 찍기 보다는 본인의 사와 무관하게 출마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가 곤혹스럽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고흥 출신의 송영길 의원은 26일 남도포럼 주최로 순천대에서 토크콘서트를 갖는다. 이날 콘서트에는 허석 순천시장 당선인과 김철우 보성군수 당선인, 전동평 영암군수 등 지역 정치인들이 다수 참석, 사실상 당권 도전 출마식이 되지 않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

오제세 “대표 3명·최고위원 8명 경합”

민주당 전준위원장 “권리당원 가중치 높일 것”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전국대의원대회 준비위원회(전준위) 위원장은 25일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해 선출하는 ‘단일성 집단지도체제’ 도입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오 위원장은 KBS라디오 ‘최강욱의 최강시사’에 출연, “(새 지도부 선출 규칙을 논의할 전준위에서) 대표와 최고위원은 따로 따로 뽑지는 방향으로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 위원장은 단일성 집단지도체제에서 지도부 구성과 관련해선 “원내대표와 당 대표가 두 분 계시고 최고위원 다섯 분, 지명직 두 분 정도 하니까 아홉 분 정도 되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다. 또 대표와 최고위원 분경선은 ‘컷오프’를 거쳐 각각 3명과 8명이 치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오 위원장은 “대표는, 컷오프를 거쳐 최종적으로 세 분 정도가 경쟁하도록 하려고 한다”며 “최고위원도 5명 정도로 예상되는데 세 분 정도 더해져 여덟 분 정도가 경쟁하는 방향으로 컷오프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 “(지도부 선출과

관련한 당헌 당규를 확정하는) 당무위원회 7월 10일을 전후로 해서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대의원 투표·권리당원 ARS 투표(85%), 국민·일반당원 선거인단 ARS 투표(15%) 경선 방식을 놓고선 “이번 지방선거를 하면서 권리당원이 숫자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서 어려운 권리당원 숫자만큼 이번에 가중치 비율을 더 높게 가져가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위원장은 ‘권리당원에 가중치를 더 두면 친문(친문재인) 후보에게 유리한 것 아니냐’는 물음엔 “권리당원 안에 친문, 비문 같이 섞여 있고 숫자가 많이 늘어난 거 때문에 늘어난 만큼 일반 비문도 많이 늘어났다고 본다”며 “어느 쪽으로 쏠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100년 신문 향한 정통지

광주일보

창간 66주년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하여-

부동산 투자!
오천경매와 함께 하면 성공합니다!

(주)오천경매 최 선 규 H.P 010-3605-5000